

쇠고기 이력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력제 전산시스템 상에 등록된 사육농가별 소 개체정보를 전국 농가에게 우편으로 안내한다.

축산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개체의 정보를 안내하는 이번 우편발송은 전국 200,638개 농장에 개별적으로 발송된다.

사육농가에서는 수령한 우편안내문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개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상 유무를 우편물에 기재하여 해당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 : 1577-2633

소 출생·거래·폐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 소가 태어나거나 사고 팔 경우 30일 이내 신고
- ▶ 출생신고시에는 어미소 번호도 함께 신고
- ▶ 초유 떼기는 반드시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후 판매



귀하의 소 사육현황 자료를 보내드리니,
동 안내서를 작성하시어 2010.3.31일까지 위탁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

농축산물 유통마진 20% 축소 추진

서울시는 농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절반 정도 축소해 2012년까지 유통마진을 최대 20% 포인트 낮추기로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유통망 개선 사업' 계획을 지난 2월 8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우와 국산 돼지고기는 농협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전통시장에 농협 직거래 정육점을 육성해 유통망을 대폭 줄인다. 기존 유통 구조는 생산자→농협→축산물공판장→중도매인→식육도매상→전통시장 정육점→소비자로 이어지는 최대 6단계지만, 농협이 중간상인 없이 바로 전통시장의 정육점에 고기를 판매함으로써 3단계로 줄인다는 것이다. 서

울시는 3월부터 10개 시장 10개 점포를 시범 선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전통시장의 정육점 500곳을 농협 직거래 점포로 지정하되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19일 충청로 농협 본회에서 전통시장상인회와 점포주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농축산물 유통 과정에 중간 도매상을 제외함으로써 2012년에 축산물은 유통 마진이 20% 포인트, 농산물은 13.6% 포인트 내려가 시민들이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축산물 유통단계는 6단계가 60%, 직거래 농협 통해 3단계 유통 제품은 30% 정도이며, 농산물은 90%가 6단계 구조로 유통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시민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DNA검사와 25종의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100여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했다. 축산물에는 이력 정보가 전산화돼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PDA(개인정보단말기)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충북지역

음성축산물유통과 963억원 규모 협약 체결

충청북도가 지난 2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축산물 유통업체인 음성축산물유통(대표 정용근)과 96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이 2010년 5월말로 폐쇄되고 음성군 삼성면에 건설 중인 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동 공판장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육류와 부산물의 도소매 점포 및 육가공장의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음성군 내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음성축산물유통은 현재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일원 부지를 매입 중으로 115,703㎡부지에 2011년까지 963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지역

익산 축산물 도매시장 3월 개장

전북 익산에 축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선다. 전라도에 따르면 축산물의 도축-가공-경매-유통을 동시에 하는 도매시장이 익산시 현영동 (농)축림 부지에 건립돼 3월 개장했다. 축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축산능가는 경매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판장까지 장거리 운송하는 불편함을 덜고 연간 223억원의 운송비가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신선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내다봤다. 이 도매시장 건립에는 도와 익산시가 각각 7억원, 국비(융자) 14억원, 자부담 7억원 등 총 35억원이 투자됐다.

익산시 왕궁축산단지 완전철거 추진

세만규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북 익산시 왕궁축산단지가 완전 철거된다. 지난 2월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왕궁축산단지를 철거하고 식품산업이나 연구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도와 익산시는 축산단지 철거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3월 정부에 종합대책을 제출했다. 왕궁축산단지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27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세만규 오염원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별 협의를 통해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18일 조사관을 익산에 파견해 축산단지 현황과 후속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왕궁축산단지를 철거하기 위해서 1,07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또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간 협의가 안 돼 10여 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왕궁축산단지는 260농가, 11만 8천마리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80㎡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

제주시, 서울·경기 제외 생산 쇠고기 반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생산된 쇠고기 등의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지난 2월 21일 0시부터 허용했다. 이번 반입 해제 조치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 포천 지역의 구제역 최종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구제역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를 고려해 이뤄진 것. 반입 금지가 유지되는 지역 및 품목은 위험·경계 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불 고려,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